

야구

6

2019년 11월 15·16일 주말판

스포츠동아



페게로

페게로 교체냐, 동행이나 재계약 고민에 빠진 LG

교체와 동행의 갈림길에 서있다. LG 트윈스가 카를로스 페게로(32)와의 재계약 여부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장점과 단점이 분명하다. 2019시즌 토미 조셉의 대체 외국인 선수로 7월 중순 LG에 합류했던 페게로는 힘이 장사다. KBO 리그에 적응하는데 다소 애를 먹었지만 9월 한 달간 리그 최다 6홈런에 역시 최다인 24타점을 몰아치며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해냈다. 뒤늦게 시동이 걸렸으나 최종 기록은 52경기 타율 0.286에 9홈런 44타점이다. 특히 목직 한 스윙으로 만드는 압도적 타구 속도로 '걸리면 넘어간다'는 강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수비가 문제다. 본래 주 포지션이 외야인 페게로는 LG에서 꼭 필요한 역할인 1루수로는 안정감이 떨어졌다. 어쩔 수 없이 좌익수인 김현수가 번번이 1루를 채워야 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김현수에게도 부담이었다. 좌익수로 401타석을 소화해 0.342의 타율 성적을 낸 김현수는 1루수로는 121타석 타율 0.204에 그쳤다.

올 시즌 동반 14승을 달성한 타일러 윌슨, 케이시 켈리를 모두 붙잡으려는 LG는 페게로의 잔류 여부만 결정은 하지 못했다. 감독의 최종 선택이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외국인 타자 영입 후보 리스트를 마련해둔 차명석 단장도 류 감독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14일 마무리캠프가 진행 중인 이천 LG 챔피언스파크에서 만난 류 감독은 "여러 가지로 생각 중이다. 페게로는 1루 수비가 힘들다"며 "만약 팀에 남는다면 지명 타자 혹은 외야수로 활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1루수는 김현수 뿐"이라고 짚었다. 하지만 "현수는 1루에 있을 때 타격 페이스가 떨어진다. 외야에 있어야 하는 선수"라고 강조하며 "페게로도 2020시즌 외국인 타자 후보 중 한 명이다. 페게로가 아니라면 1루수를 외국인 선수로 뽑겠다"고 밝혔다.

이천 | 서다영 기자 seody3062@donga.com



'특급 마무리' 조상우, 김시진 KBO기술위원장 조언 듣고 감탄한 이유

“전설 족집게 과외 듣고 밸런스 고쳤어요”



포수 사인때 고개 오른쪽으로 돌려 최근에 문제 느낀 부분 정확히 지적 대표팀 분위기 굿...이제 이기면 돼



“바로 반영해야죠.”

한국 야구대표팀 우완투수 조상우(26)는 14일 일본 도쿄돔에서 진행된 대표팀 훈련에서 특별한 '선배'를 만나 값진 조언을 얻었다. 투구 밸런스와 관련해 귀한 이야기를 해준 이는 바로 김시진 KBO 기술위원장(61)이었다.

김 위원장은 훈련 전 조상우와 함께 투구 밸런스와 관련해 사뭇 진지한 대화를 나눴다. 투구 동작 직전 모습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조상우는 감탄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다.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취재진이 물어보자 “최근에 문제를 느낀 부분을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짚어 주셨다. 조언도 해주셨는데, 다음 경기부터 바로 반영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구 직전 포수와 사인을 교환할 때 나도 모르게 고개가 오른쪽으로 쏠리는 경우가 있더라. 아무래도 회전

을 하면서 던지다 보니 그런 행동이 나왔던 것 같다”고 설명한 뒤 “체중을 정면으로, 앞으로 이동시켜야 하는데 옆으로 가게 되니까 밸런스에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시속 150km가 넘는 그의 직구는 현재 대표팀 투수진 중 가장 힘 있는 공이다. 이를 바탕으로 이번 대회에서 거두고 있는 성적은 2.2이닝 무실점. 허용한 안타는 단 한 개 밖에 되지 않는다. 대표팀 최강 불펜의 중심에 있는 선수라 할 만하다.

멕시코와 일본이라는 난적이 남아 있지만, 자신감은 여전하다. 이전 경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설명이다. 조상우는 “대표팀 분위기는 여전히 좋다. 이제 이기면 된다. 멕시코와 일본이 강팀이라지만, 이제까지 만난 팀도 모두 강한 팀들이었다. 똑같이 내 할 것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자기 공만을 생각하는 조상우에게는 상대측 응원 열기 또한 전혀 무관심한 일이다. 조상우는 “(대만전에서) 무슨 말로 응원하는지 모르니까 그냥 야구에만 집중했다. 아무생각 없이 던졌다”고 설명했다. 다가오는 16일 한일전 역시 그에게는 똑같은 한 경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조상우는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대표팀의 수호신으로 자리매김했다. 150km를 기쁘히 넘는 속구에 내로라하는 타자들도 연신 배트를 휘둘린다. 여기에 '전설' 김시진 KBO 기술위원장의 조언이 더해졌다. 조상우의 위력은 더욱 강해질까? 스포츠동아DB

멕시코는 계투진, 일본은 4번타자 스즈키 '경계 1순위'

크루즈·살라스 등 멕시코 불펜 무실점 행진 스즈키 타율 0.476·11타점·3홈런 맹활약

한국 야구대표팀은 15일과 16일에 2019 세계야구소프트볼연맹(WBSC) 프리미어12 슈퍼라운드에서 멕시코와 일본을 차례대로 만난다. 2020 도쿄올림픽 출전권과 대회 결승전 진출을 자력으로 얻으려면 반드시 2승이 필요하다.

멕시코는 A조 예선을 1위로 올라온 강팀이다. 슈퍼라운드에서도 3승1패를 기록해 14일까지 일본과 함께 공동 1위에 올라 있다. 멕시코가 슈퍼라운드에서도 순항할 수 있는 이유는 잔물 투구를 자랑하는 투수진의 힘 덕분이다. 이번 대회에서 전체 투수진 평균자책점 1.44를 기록

해 슈퍼라운드 진출한 6개 팀 중 가장 낮은 평균자책점을 마크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불펜의 힘은 특히 더 놀란다. 헤수스 크루즈(5이닝 무실점), 노엘 살라스(2이닝 무실점) 등 계투진의 힘을 앞세워 쟁쟁한 승리가 상당하다. 중간계투로 시속 150km 이상을 던지는 투수들이 즐비하다. 이순철 SBS 스포츠해설위원은 “멕시코 중간계투들의 공이 상당히 좋다”며 걱정을 보이기도 했다.

대표팀 김재현 타격



▲스즈키 세이아

코치는 14일 “직구는 물론 변화구도 좋은 투수들이 많다. 선수들한테 스윙 폭을 작게 가져가자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타구가 멀리 나가는 도쿄돔에서는 정확한 포인트에 맞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일에 열리는 일본전에서는 4번타자 스즈키 세이아(25·히로시마 도요 카프)를 가장 경계해야 한다. 스즈키는 이번 대회 일본 대표팀의 불박이 4번타자. 이번 대회 성적은 타율 0.476,

11타점, 3홈런, 8득점. 타율, 홈런, 타점, 득점 등 대부분의 공격지표에서 모두 1위에 올라 있다.

우타자인 스즈키는 당겨 치는 유형의 타자인데 앞서 미국과 멕시코는 극단적인 수비 시프트를 통해 스즈키를 상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두 팀 모두 멀티히트를 허용해 봉쇄에는 실패했다. 데이터 기반 수비도 뚫어낼 만큼 좋은 유형의 타자다. 대표팀으로서는 보다 철저한 분석을 통해 장타를 내주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야 한다.

도쿄 | 정은성 기자 award@donga.com

6kg 빠진 노시환, 매일 달걀 15개 먹는 장민재...

“군살 빼고 근육 키워라” 특명 한화 마무리캠프 ‘살과의 전쟁’

한화 이글스가 충남 서산의 전용연습구장에 마무리훈련 캠프를 차린 지도 어 느덧 1개월이 지났다. 김태균, 이성열, 윤규진, 정우람 등 4명의 프리에이전트(FA) 선수들과 일부 부상자들을 제외한 1·2군 선수단 전원이 지난달 15일부터 서산에서 합숙훈련을 진행 중이다. 일본 미야자키 교육리그에 참가했던 젊은 선수들이 10월말 합류하면서부터는 일주일에 2차례씩 자체 청백전을 소화하며 시즌 중 부족했던 팀플레이도 다듬고 있다.

훈련 강도가 약하지 않은 만큼 선수들의 몸은 페넨트레이스를 치를 때만큼이

나 가볍고 민첩하다. 군살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날렵해진 선수들도 적지 않다. 올해 대형 고졸 신인 내야수로 기대를 모았던 노시환(19)이 가장 눈길을 끈다. 물라보게 날선(?)해졌다. 아니나 다를까. 노시환은 14일 “일본 교육리그 때부터 6kg이 빠졌다. 요즘 체중은 99kg 정도다”고 털어놓았다. ‘군살을 빼고 근육을 키워라’는 코칭스태프의 당부를 철저히 지킨 덕분이다.

비단 노시환뿐만이 아니다. 내년이면 30대로 접어드는 투수 장민재(29)도 예외는 아니다. 시즌 중반 이후 팔꿈치 부상으로 개점휴업이 길어진 탓에 상체를 중심으로 제법 군살이 붙었는데, 마무리 캠프에 참가한 뒤로 달걀 흰자를 하루 15개씩 꼬박꼬박 먹어가며 지방을 제거했다. 장민재는 “지금은 원래 식단으로

들어갔는데, 달걀은 냄새도 못 맡을 지경”이라며 너스레를 떨었지만, 어느새 단단하게 탄력이 살아난 상체가 싫지 않은 듯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한용덕 한화 감독은 “오전에는 팀 훈련 위주로 진행하고, 오후에는 각자 웨이트트레이닝을 비롯한 개인운동을 한다. 선수 개개인이 필요에 따라 야간훈련도 하니 하루하루가 짧은 정도로 훈련량은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투수 김민우나 박주홍에게도 상체의 군살을 빼라고 주문했다. 부상 없이 훈련과 실전을 소화하려면 몸 관리부터 철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감독은 20일 마무리훈련이 종료된 뒤에도 선수들 각자가 개인훈련을 게을리 하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산 | 정재우 기자 jace@donga.com



노시환



장민재